

OECD 단기경제통계 전문가회의 참가 결과

□ 참가 국제회의 회의명

- 국제회의
 - OECD 단기경제통계 전문가회의
(OECD 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Expert Group)

□ 회의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09. 9. 10.(목)~9. 11.(금)
- 장소 : 프랑스 파리

□ 주관기관 및 참가규모

- 주관기관 : OECD
- 참가규모 : OECD국가, 덴마크, 칠레,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 인도, 중국, 유럽공동체 등으로부터의 약 70명의 경제학자 및 통계전문가가 참석

□ 참가 배경 및 목적

- OECD에서 각 회원국 대표의 참석을 요청함에 따라 OECD 대표부에서 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대표단 파견을 우리 청에 요청(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3284, 2009. 6. 16)
-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시의성이 있으며, 적절한 금융 경제지표의 개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 작성 및 분석에 활용

□ 주요 수행사항

- 회원국 대표로서 참가하여 단기경제통계에 대한 각국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환 및 분석 방법에 관한 토의 및 업무협의

□ 주요 회의내용

세션 1 단기경제통계와 금융위기 국제적 전망

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and the current crisis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 ◆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의 역할, 시의성 있고 적절한 금융 경제 지표의 개발, 기타 각국의 노력을 소개

- ESCB: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이라는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함
 - 모든 금융 부문과 금융시장을 총괄하는 통계 작성 및 개발 중인 마

이크로 통계자료까지 포함하는 통계 작성

- 유로지역 국민계정 개선(주택과 다른 생산된 자산을 포함하여 90일 정도의 시의성 확보)
 - 재정예 미치는 금융위기의 효과에 대한 꾸준한 관측
 - 유관기관과의 협력 증진과 정보 공유(ESCB, ESS, IMF, BIS, CEBS, 산업 유관단체)
- IMF: 경제와 시장의 통합은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게 된 원인이며, 세계적인 여러 시장을 총괄하는 전 세계적 금융 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음을 지적
- 역사적으로 위기는 금융과 경제부문의 통계에 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었고 이번 금융위기도 다르지 않음
 - 이에 따른 두 가지 주요 요구사항은 먼저 보다 접근성이 좋고 시의성이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 또한, 위기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자료에 대한 요구를 언급하는 것임
 -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는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중요한 요인임
- OECD: 'OECD Perspective'를 통해 OECD에서 금융위기와 단기경제 통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단기경제통계전문가회의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음
- GDP나 총고정자본형성 그리고 산업생산지수 등을 이용하여 금융위기 발생을 단기경제통계가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위기의 패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규제받지 않는 은행 부문의 과도한 성장이 일어나고, 가계부문이 과도하게 성장하고, 미국에 전파되기 시작하여, 끝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물부문으로 퍼져나가는 패턴임

-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와 무역량이 과거 위기를 겪어오면서 점차 위기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지표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음을 보여줌
- 끝으로 단기경제통계전문가회의(STESEG)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세션 2 단기경제통계와 금융위기 각국의 통계기관의 입장

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and the current crisis *A national statistics office perspective*

- ◆ 금융위기는 각국의 통계기관들에게 단기경제통계의 편찬과 보급에 있어서 특히, 계절조정오차, 기업의 생멸과 합병 그리고 정부기관의 시장 진입 등에 관하여 논의함

- ONS: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후퇴와 그 효과를 13가지 실행과제를 통해 관찰하려 하고 있으며, 몇몇의 시급한 실행과제는 이미 수행하고 있고, 2010년 중반까지는 모든 실행과제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경기 후퇴로 인한 통계적 이슈들을 언급하는 사전적인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 ONS의 통계들이 현 상황에 대하여 정확성을 잃고 틀린 방향을 제시하게 되고,
 - 투자자와 정책 논평 전문가들의 질문에 빠르게 답변할 수도 없으며,
 - 과거로 회귀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음
- ONS는 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와 방어에 필요한 문서에 대해 좀 더 신중하기보다 오히려 잘 못된 판단의 위험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슈를 다루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

고 있음

- BEA: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다음과 같은 6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은행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 불이행을 다룰 수 있도록 했음
 -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 GSE(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 Guarantee Program
 - 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Homebuyer Tax Credit
 - CARS(Consumer Assistance to Recycle and Save Program)
- 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금융 기관들의 연쇄 파산을 방지하며,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담보물의 처분을 막았음
- FRB: 미국 산업생산지수를 경기 하락 시기에 몇 가지 조정 작업을 거쳐 계절 조정된 시계열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생산능력지수의 도출과정과 최종적으로 가동률을 도출하고 있음
 - IP/CU 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조정 작업이 있으며, 현재의 조정 작업은 충분히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나, 새로운 분기별 공장가동률 조사 자료를 이용해야 할 것임
 - 최근 월별 갱신 자료는 여러 가지 갱신된 자료로부터 얻어진 결과이며, 산업생산지수와 생산능력에서의 오차가 서로 상쇄되어 가동률은 크게 갱신되지는 않았음
- ABS: 경제가 상승기에서 하락기로 전환될 때, 추정이나 자료대체(imputation) 방법은 위험하며, 자료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임
 - 환율과 가격변수가 2008년에 비하여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하룻밤 현금 대출 이자인 Cash rate가 2008년 3월 7.25%에서 2009년 2월 3.25%로 급감하였으며, 금융부문의 자료들은 시의성이 부족했

음(대부분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거나, 추세 추정량을 이용하였음)

- Bank of Italia: 주택시장에서 정보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이를 위해 주택시장을 제대로 관측할 필요가 있음
 - 이태리에서 주택에 있어서 가격에 관한 통계는 우선 사적인 거래 가격은 아직 이용할 수 없으나, 대신 Nomisima 라는 자료가 있으나 다만 제한된 지역에 국한된 통계이며, CI는 1965년부터 수집된 자료이고 넓은 지역을 포함하지만, 자주 표본을 바꾸어 연속성이 없는 단점이 있고, 끝으로 OMI는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2002년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새로운 BoI 가격 지수를 개발하여 주택가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주택가격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할 과제들을 소개하였음

세션 3

새로운 국제분류기준의 단기경제통계 적용 *Implementation of new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into 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 ◆ 2009년 ISIC rev. 4와 NACE rev. 2 등 새로운 국제분류기준이 개발되어 유럽연합은 단기경제통계에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과정에 관련하여 각국의 의견이 논의됨

- Eurostat: NACE rev. 2를 EU의 단기 기업 통계에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4가지 산업에 대한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에 규제안이 추가로 부가됨
 - 새로운 NACE를 적용하면서 기준년도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하였음
 - EU가입국들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데 대부분 성공적이며, Eurostat 웹사이트는 2009년 4월까지 월별자료를, 2009년 6월까지

는 분기별 자료를 보여줌

- CBC(Statistics Netherlands): 새로운 NACE rev. 2를 단기경제통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논의로 두 가지 접근방법 즉, 미시적 접근방법과 거시적 접근방법을 비교하고 있음
 - 두 가지 접근방법 모두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하여 두 가지 접근방법을 결합한 방법을 적용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시 하고 있음
- Statistic Austria: 기업등록(Business Register) 통계가 NACE rev. 1.1과 NACE rev. 2로 두 가지 분류 코드로 작성되어 있음
 - 거시적 접근방법은 기업등록 통계를 이용하여 전환 행렬(conversion matrix)를 만들어 1995년과 2000년 기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를 NACE rev. 2로 전환함
 - 미시적 접근방법은 NACE rev. 1.1로 작성된 2005년 기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계열을 NACE rev. 2로 바꾸어 앞서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도출한 자료와 합쳐 장기 시계열을 작성함

세션 4

단기경제통계 추정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자료 이용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in improving short-term statistics estimates

- ◆ 국가통계기관이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효율성, 응답부담, 새로운 기술의 발달, 증가하는 시의성 있는 통계에 대한 수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Statistics New Zealand: 세무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기업의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응답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이용자의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함

- 다음 단계로 연간자료보다 짧은 기간의 금융 통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임
- Statistics Denmark: 매출액 자료는 부가가치 자료와 생산량 조사에서 또한, 산업생산지수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되고 있음
 - 매출액 자료는 부가가치 자료를 이용하고, 재고량은 표본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SCB(Statistics Sweden): 매출액 자료를 얻기 위하여 부가가치 자료를 이용하는데, 대기업은 집계하는 월의 25일이 지나면 자료를 제공하지만, 소기업은 집계하는 분기의 40일이 지나서야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통계청에선 35일 집계하는 분기의 35일 이후엔 자료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표본조사와 자세한 분기별 소기업 생산량에 대한 부가가치 자료를 이용하는데, 실제로 첫 달과 두 번째 달의 자료를 이용하여 세 번째 달의 자료를 추계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계급 즉 산업과 기업의 크기별 평균을 이용한 추계방법을 이용함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Israel: 신용카드 구매는 구매자들이 지불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 되었음
 - 신용카드에 관해 주의해야 할 점은 가맹점 가게 소비지수와 개인 소비지수보다 신용카드 소비지수가 급격하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임
 - 신용카드 회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회 거래마다 평균적인 금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를 대신하여 거래횟수와 총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Statistics Finland: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행정자료가 변경되는 경우 미리 대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행정자료도 직접 조사한 자료와 같은 보충 자료를 함께 이용해야 하며, 적어도 행정자료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세션 5

단기 기업 생멸 통계의 개발

Development of short-term business demography statistics

- ◆ OECD는 최근 Entrepreneurship Indicator Programme(EIP)의 일부로 몇 개의 기업 생멸 통계 지표를 개발하였는데, 예를 들어 진입, 퇴출, 생존율 등임

- OECD: EIP은 OECD와 Eurostat 그리고 Kauffman 재단의 협조 하에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에 처음 발간되었으나, 2년에서 3년까지 시차가 있어 시의성 있는 자료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첫 번째 대안으로는 시의성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 대안으로는 노동력 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임

세션 6

국가별 발표

National Presentations

- ◆ 각 국가별 단기경제통계에 관한 내용을 발표함

- INEGI, Mexico: 분기 GDP를 Denton 방법을 통해 몇 분 만에 737개 시계열로 분해할 수 있으며, 시계열의 가능한 오류를 빠르게 관측할 수 있음
-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India: 인도의 산업생산지수는 총 538개 품목에 대하여 라스파이레스 지수로 편찬하고 있음

- 자료는 산업 정책 및 진흥 부처(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에 의해 52%가 직접 조사되고, 광업 부처(Bureau of mines)와 중앙 전기 부처(Central Electricity Authority)에서 광업과 전기 자료를 수집함
- 지수는 집계된 다음 달에 추정치가, 최종지수는 3개월 후에 발표됨
- BEA: 뉴스와 노이즈 분석은 처음 집계된 통계와 갱신된 통계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여 집계된 통계에 뉴스가 많았는지 노이즈가 많았는지 알아보는 분석임
- GDP보다 GDI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도 GDI의 분산이 크기 때문인데, 분산이 크다는 것은 정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결론 및 시사점

- OECD STESEG에서는 금융위기, 행정자료, 산업분류, 갱신된 자료 분석(revision analysis), 벤치마킹 이슈, 기업 생멸통계 등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 하였으며, 향후 Task Force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연구를 지속하기로 함
-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고, 각국의 통계기관이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음
- 새로운 분류기준의 도입에 따른 각국의 통계작성 방법에 관한 방법론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응답부담을 줄일 수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단기경제통계 작성에 관한 각국의 노력을 알게 되었고, 기업 생멸 통계에 관하여 OECD에서 개발한 EIP가 시의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함
- 향후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연구 및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관련통계의 개선 및 국제 연구동향 파악 필요

- 내년 회의에 관해서는 세션 7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올해 회의에 대한 평가와 내년 회의에 대한 계획을 논의함
 - 각 분야별 Task Force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할 예정임

【첨부】

2009 OECD 단기경제통계 전문가회의

□ 첫째날 : 9. 10(목)

시간	내용
10:00-10:20	개회식
	세션 I 단기경제통계와 금융위기 국제적 전망 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and the current crisis <i>The International Perspective</i>
10:20-12:00	Chair – Alfredo Leon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o topic Alfredo Leon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current economic crisis: statistical initiatives of the E(S)CB Daniela Schackis, ECB Macroeconomic statistics and the current crisis Alfredo Leon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OECD Perspective David Brackfield, OECD 토론
12:00-14:00	오찬
	세션 II 단기경제통계와 금융위기 각국의 통계기관의 입장 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and the current crisis <i>A national statistics office perspective</i>
14:00-16:20	Chair – Gian Paolo Oneto, ISTAT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o topic Gian Paolo Oneto, ISTAT Statistical Methods in a Rapid Recession Derek Bird, United Kingdom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Financial Crisis Policy Responses in the US National Accounts Dennis Fixler,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Measuring US Industrial Production during a Downturn in Economic Activity John J Stevens, US Federal Reserve Board When It's Not Business As Usual Michael Smede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The Italian Housing Market in the Crisis: Fresh Evidence Francesco Zollino, Bank of Italy 토론
16:20-16:40	휴식

시간	내용
	세션 III 새로운 국제분류기준의 단기경제통계 적용 <i>Implementation of new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into short-term economic statistics</i>
16:40-17:40	Chair – Brian Newson, Eurostat Introduction Brian Newson, Eurostat Implementation of NACE rev. 2 in 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what did we do in practice? Leendert Hoven, Statistics Netherlands Calculation of STS-indicators in industries and construction according to NACE Rev. 2 Monika Brunauer, Statistics Austria 토론

□ 둘째날 : 9. 11(금)

시간	내용
	세션 IV 단기경제통계 추정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자료 이용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in improving short-term statistics estimates
9:30-11:20	Chair – Søren Kristensen, Statistics Denmark Opening remarks Søren Kristensen, Statistics Denmark Use of administrative data in sub-annual statistics – how far can we go? Kathy Connolly, Statistics New Zealand “Why collect the same information twice?”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using VAT data in the estimation of the Danish IIP Søren Kristensen, Statistics Denmark Use of administrative data in short-term statistics for the service sector Daniel Lennartsson, Statistics Sweden Credit-card purchases as a short-term indicator Yoel Finkel,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Israel Preparing for changes in administrative data for short-term statistics Ville Koskinen, Statistics Finland 토론
11:20-11:40	휴식

시간	내용
	세션 V 단기 기업 생멸 통계의 개발 Development of short-term business demography statistics
11:40-12:00	Chair – Jiemin Guo, OECD Short-term indicators of business dynamics: entry, exit and survival rates Koen de Backer, OECD
	세션 VI 국가별 발표 National Presentations
12:00-12:30	Chair – David Brackfield, OECD Benchmarking official data in Mexico Adriana Jimenez-Pineda, INEGI Mexico Construction of the 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 in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India News versus noise: revision analysis Denis Fixler: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12:30-14:00	오찬
	세션 VII STESEG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Where to from here
14:00-?	Chair – David Brackfield, OECD 그룹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의